



여주대학교

1993년 12월 1일 창간 | 월간 발행

The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News

여주대시 | 모
T L L

Fun & Tong, Together!

편한 대학, 통하는 대학, 함께 꿈을 키우는 대학!

제122호 |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다양한 학과의 졸업작품전 선보여 패션디자인과 선두로 각종 작품전, 학술제 열려

한해를 마무리하며 그간 배운 지식을 발표하는 자리가 2학기 연일 마련되었다.

지난 9월 23일 패션디자인과 졸업발표회를 시작으로 사진영상과, 작업치료과, 간호학과, 건축과, 실용음악과, 게임기획비즈니스과, 방송미디어제작과의 작품전이 이어졌으며 오는 12월 15일부터 연예뮤지컬연기과 졸업공연이 열린다.

9월 23일에는 패션디자인과가 서울패션센터에서 11-누보

떼빠(Nouveau Depart, 새로운 시작)를 주제로 42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화려한 패션쇼를 선보였다. 봄, 한글, 여성미, 모더니즘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아름다운 이미지를 구현한 여덟 개의 스테이지가 펼쳐졌다.

사진영상과는 10월 27일부터 5일간 '출발'을 주제로 16회 졸업전시회를 진행했다. 학생 특유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같은 날 작업치료과는 봉사관 콘서트홀에서 제10회 학술제 및 선서식을 가졌다. 지난 3년간 배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날은 1,2학년의 도구사용법과 UCC 상영, 댄스 등과 같은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져 흥미를 끌었다. 특히 열정적인 작업치료사로서의 삶을 약속하는 선서식에 김양종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재학생, 동문, 학부모가 참석해 격려를 더

했다.

10월 28일에는 마로니에 홀에서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개최되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촛불의식을 통해 간호사로의 역할을 다짐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건축과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소동본부 통 스트리트에서 졸업작품전을 가졌다. 여주 지역을 주제로 다양한 공간을 설계도부터 미니어처까지 전시했다.

실용음악과는 지난달 17일과 18일 양일간 흥대 브이 홀에 1, 2학년 168명이 모여 실력을 뽐냈다. 우리 대학 대표 인기학과답게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가 돋보였다. 음악으로 어우러지기 위해 오래도록 연습한 실력

이 4시간 내내 뿔어져 나왔다.

19일에는 콘서트홀과 통스트리트에서 각각 제10회 방송미디어제작과 졸업 작품 시사회와 게임기획비즈니스과의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방송미디어제작과는 2학년 재학생들이 3개월 이상 준비한 14편의 다큐멘터리와 드라마를 상영했다. 게임기획비즈니스과는 보드부터 컴퓨터 게임까지 약 10여종의 게임을 전시해 오가는 학우들의 흥미를 끌었다.

끝으로 오는 연예뮤지컬연기과가 이번 달 15일부터 9일간 대학로 스튜디오 SK극장에서 '쓰릴 미'를 비롯한 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정은, 안예지, 임다슬 기자



2015 세종인문도시축제 열려

10월 29 ~ 30일

세종인문도시 인문주간 행사 일환

학술회의가 실시됐다. 최종현통의도시연구소장의 '여주에 임한 한강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열린 인문공감 콘서트에는 재학생 50여명 뿐 아니라 지역주민 다수가 모여 큰 호응을 이뤘다. 오후에는 박현모 교수와 방상근, 김영호, 김재익 연구원을 중심으로 '세종을 만든 문

현,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학술회의의 중간에는 인문도시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콰르텟 바코드와 우리 대학 동아리인 용마음악단, 소리들, S.M. nation의 공연을 가졌다.

30일에는 용마체육관과 소동본부 지식터에서 각각 세종 글

든벨과 세종이야기-여기세(여주 기살리는 세종이야기)가 행해졌다. 세종대왕과 여주시, 우리 대학, 우리말에 관련된 50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에서는 비즈니스영어과 오성훈 학우가 1위를, 세무회계정보과 한혜주, 이찬우 학우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세종이야기-여기세'에서는 내가 만난 세종이라는 주제로 발표회가 열렸다. 김원호 자동차과 교수, 최승호 물리치료과 학우 등 6명이 세종을 공부하면서 달라진 삶과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김혜빈 기자

지면안내

1면 • 졸업작품전
• 세종인문도시축제

2면 교내

• 제24대 총학생회장 선거
• 2015 산학협력 주간 페스티벌
• 제11회 NCS기반 입사전형 콘테스트
• 임기매 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 양승룡 교수, 학술상 수상
• 2015 취업역량강화 캠프

3면 사람

• 김영기 총동문회장 인터뷰
• 교내단신

4면 · 5면 기획

• 제17회 문예대상
입상자 발표

6면 사회

• 한국사 국정화교과서 사태
• 타임머신
• 학생회 칼럼

7면 광장

• 칼럼
• 사설
• 기자수첩

8면 문화

• 어디까지 가봤나-목야박물관
• 책을 보다
- 나미야잡화점의 기억
• 문화산책 - 연극 웃음의 대학
• 감사합니다

독자퀴즈 당첨자

축하합니다 !!

- 한영훈(실용음악과)
- 김민수(유통서비스경영과)
- 백가현(작업치료과)

★ 학보사에서는 재학생들의 원고 투고 및 제보를 받습니다.
(2007704@yit.ac.kr)



제24대 총학생회 선거 실시 기호 2번 박재남·최백서 당선 794명 참여, 15%라는 저조한 참여율 아쉬워

최백서 후보진영이 유세기간 내 내 아침 선거운동을 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체 5,365명의 재학생 중 794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호 2번이 411표를 획득해 28표차라는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음에도 15%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박재남, 최백서 회장·부회장 당선자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6,000여명의 학우들과 멋진 우리 대학을 만들겠다”며 “학우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24대 총학생회를 이루겠다”며 당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체 재학생의 1/5도 참여하지 못해 우려가

컸다. 몇몇 학우들은 선거공고 글자가 작아 투표소와 시간을 알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학생처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투표율이 떨어져서 안타깝다. 전자투표 등의 방안도 생각했으나 여러 어려움이 크다”며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남, 최백서 당선자의 공약은 등록금 동결, 버스노선 개선, 강의실 동선 개선, 중앙도서관 면학 분위기 조성, 와이파이존 확대, 동아리 활성화, 식당 메뉴 개선, 모바일 앱 간편화 등이다.

이윤지호 기자

2015 산학협력 주간 festival 열려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산학협력 주간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특히 21일 웅마체육관에서는 채용박람회가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계층과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내기업 20여

개와 산학협동 우수기업 5개, 기술인력양성기업 10개, 여주 신세계 아울렛 5개 매장 등 총 10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했다. 또한 자동차과, 전자과, 군사학부 등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동아리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지역내 다양한 일자리를 알

아보고, 자신의 위치와 개선점을 알고자 컨설팅 부스도 마련하는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를 실시했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주간 동안 창업 및 취업 특강도 진행됐다. 20일부터 22일까지 커리어코칭룸과 마로니에홀 등지에서 강길훈(인텍스루트코리아)강사, 최진희(인텍스루트코리아)강사, 박정란(케이잡스) 강사를 모시고 취업전략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예절 및 실전 연습

을 실시했다.

21일에는 이상현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을 통해 창업의 기본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19일 세무회계정보과를 시작으로 23일 글로벌 여행과까지 약 21개 학과가 선배와의 만남, 산업체 인사 특강, 경진대회 등을 실시했다.

김양중 총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정은, 안예지 기자

엄기매 교수, 교육부장관상 수상

엄기매 물리치료과 교수가 지난 5월 15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부문 유공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물리치료 분야를 학문적 수준으로 이끌고, 미개척 분야였던 노인물리치료학을 전공에 확립하는 등 학술 진흥

에 뛰어난 공적을 보였다고 선정 사유를 전했다.

엄 교수는 “올해가 물리치료가 도입되어 정착한지 50주년이 되었다. 이런 시기에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노인물리치료라는 생소한 분야를 최초로 연구했다는 공로가 인정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는 연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교육 지도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 교수는 치료의 개념이던 물리치료를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잡고, 심폐물리치료학이라는 새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노인물리치료 분야 1호 박사로 학계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성곤 교수 및 박우신 담당 국가안전처 정부포상 받아

전성곤 토목과 교수와 박우신 총무처 담당이 지난 7월 각각 2015년 재해·재난관리 유공(대통령 근정포장)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유공(국민안전처장관상)을 표창 받았다. 전 교수는 옥천 저수지 및 분당구 흙막이 제방붕괴 피해 분석과 지진, 산사태, 급경사지 재해

예방 기술 등을 연구해 왔다. 이외에도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 교수는 “학교의 저력을 외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재난예방사업과 기술연구에 주력하겠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박 담당은 지난해 7월 강천보 하류에 떠내려가던 중학생을 구한 바 있다. 그는 “지역내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재해대책유공 및 물놀이 안전 표창은 방재 및 안전 분야 기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재해예방·대비·복구 등 방재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발굴·포상하는 상이다.

아서 준 상이 아닐까 한다”며 “학회를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를 연구와 학생 교육에 활용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교수는 해당 학회 학술대회와 경진대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2015 WRO(월드 로봇올림피아드) 심사장을 역임하는 등 전자공학 및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보 분야에서 연구 활동 등에 양 교수의 공로가 매우 컸기에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학회 발전에 노력했다고 주는 공로상이라 생각한다”며 “학회 발전과 재난분야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완옥 자동차과 교수 대한전자공학회 공로상 수상

우리 대학 한완옥 자동차과 교수가 지난 28일 대한전자공학회(회장 박병국)로부터 2015년도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학회 측은 친환경 전기자동차 분야의 연구활동과 통신 및

제어 등 전자 분야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에 수상자로 선정하였음을 밝혔다.

한 교수는 “올해 전자공학회 지를 발간하고 춘·추계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등 일을 도맡

양승룡 교수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상 수상

지난 2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에서 양승룡

도시조경과 교수가 제1회 ICDR 국제논문발표대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재난정

취업역량 강화·자존감 향상 캠프 300여명의 재학생 참여, 창업캠프도 함께 진행



우리대학이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조트에서 취업역량 강화·자존감 향상 캠프와 창업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는 300명 이상의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특히 취업을 앞둔 2·3학년을 중심으로 자기계발을 통한 진로계획 설정 및 취·창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 등 다채로운 강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모의면접과 발표회를 통해 실전 대비와 순발력 향상 기회도 제공했다.

취업역량 강화·자존감 향상 캠프는 엘리트코리아와 CJS교육센터가 주관하여 입사지원서 작성법, 팀워크

과제 수행, 면접 실습, 인생스토리 구축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창업캠프는 엄청난 벤처의 주관 하에 조별 과제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구축 작업과 프레젠테이션 등 다방면의 경진대회로 구성되었다.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취·창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제11회 NCS기반 입사전형 콘테스트

제11회 입사전형 콘테스트-스토리텔링 100초의 품격이 지난 달 25일 오후 2시 마로니에홀에서 개최되었다.

면접스킬 및 취업을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는 재학생 31명과 이유미 엄청난벤처 대표, 진상두 상지영서대 취업지원팀장, 장용희 산학협력처 부처장, 김민우 총학생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 또는

자기소개를 주제로 100초를 구성·발표하는 것이 과제였다.

특수전과 최정락 학우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실용음악과 박상준, 게임기획비즈니스과 문영진 학우가 금상을, 국방의료과 오지혜, 유통서비스경영과 심윤보, 임다슬 학우가 은상을 차지했다. 그외 25명은 동상을 받아 참여 학우 전원에게 시상식이 이뤄졌다. 한편 학과지도상은 특수전과가 수상했다.

교내단신

보건의료행정과 제3회 채용박람회 및 산학협력 체결식

지난 26일 우리대학 통센터에서 보건의료행정과 NCS기반 제3회 채용박람회 및 산학협력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학과, 기업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우수 업체 채용 기회 마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양중 총장, 이수재 학과장을 비롯해 강동내과검진센터, 신촌연세병원 등 3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했던 병원 및 협회 실무진들과 바로 만나 현장면접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기에 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가족회사 체결 및 산학협력구성합의도 함께 진행됐다.

실용음악과 부속유치원생 대상 체험교육

실용음악과가 지난달 26일 앙상블실에서 우리대학 부속유치원생 11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김형천 교수의 지도 아래 재즈, 보사노바, 록, 가요, 팝, 캐럴 메들리 등의 장르별 작은 음악회와 악기 체험이 진행됐다.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음악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님을 알게 해준 것 같으며 뿌듯함을 드러냈다.

제1회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

지난 19일 우리 대학과 여주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협의회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여주시의회가 주최한 제1회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이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열렸다. ‘여주시 사회복지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동선, 김성희 사회복지과 교수가 각각 사회자와 발표자로 참여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의 복지와 현황, 발전 방향을 계획·수립할 수 있었다. 포럼에 참여한 이소연 사회복지과 학우는 “이런 포럼이 자주 열려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여주지역이 발전되면 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문화관광학부, 허수아비 축제 특별상 수상

우리대학 문화관광학부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오곡나루 축제 중 제2회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관광중국어과, 글로벌여행과, 호텔관광과, 비즈니스영어과, 호텔외식산업과로 구성되어있는 문화관광학부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해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이들은 학과 특성에 맞게 각 나라별 의상을 입은 허수아비를 제작해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

스포츠건강관리과 ‘코리아 라인댄스 챔피언십’ 1위

지난 10월 24일 우리 대학 옴바체육관에서 개최된 코리아 라인댄스 챔피언십에서 스포츠건강관리과가 팀 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YIT Line이라는 이름으로 김영일 외

12명이 참여하여, 마정순 교수의 지도 아래 3개월 이상 준비해왔다. 대회에 참여한 스포츠건강관리과 학생들은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 함께 해준 동기, 선후배에게 매우 고맙다. 끈근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평생교육원 민병우 여주시장 표창장 수여

우리 대학 평생교육원 민병우 담당이 지난 10월 16일 여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 담당이 원예심리상담사(2급)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써왔기에 이뤄졌다. 원예심리상담사는 여주지역내 취약계층인 노인을 꽃이나 나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그의 수상은 여주지역이 경기도 내 노인자살률 1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민 담당은 “아직도 열렬하다. 앞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베트남 하노이 폴리텍 대학 MOU 체결

지난 10월 23일 우리 대학 커리어코칭룸에서 하노이 폴리텍 대학과의 교육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양중 총장과 처장단, 하노이 폴리텍 총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우리 대학은 앞으로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양교 간 교육 네트워크 지원을 약속했다. 하노이 폴리텍 대학은 2001년 9월 설립되었으며,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학과에서 재학 중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저명인사 초청특강

지난 10월 23일 봉사관 콘서트홀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모시고 저명인사 초청특강이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는 군사학부 등 본교 재학생 300여명이 참여했다. 재학생들의 학업마인드 조성과 인성 함양을 위해 개최된 특강에서 이 교육감은 ‘대학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주제’로, 변화의 요구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라는 내용의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생각의 확장’과 다양한 관점, 새로운 문맥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혁신시대에 눈을 뜨지 않으면 위기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5 소통 콘서트Y 마무리지어

9월 8일부터 시작된 소통 콘서트Y가 지난 11월 6일 치위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쌍방향 거꾸로 학습법’으로 마감됐다. 소통콘서트 Y는 Y형 인재 양성과 Fun & Tong, Together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리더십, 주도성, 진로탐색, 취업 준비 등의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Y형인재인증원은 올해 콘서트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2016년에도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인터뷰 우리 대학의 숨은 조력자

김영기 총동문회장



학교에는 다양한 자치기구가 있다. 총학생회, 대의원회. 이들의 역할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총동문회는 낯설다. 졸업생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곳. 졸업생의 편의 뿐 아니라 재학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 학교의 숨은 조력자로서 총동문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기 총동문회장을 만났다. 총동문회 이사부터 학생회, 총학생회, 대의원회까지 참석한 흥미진진한 인터뷰였다.

총동문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 총동문회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역할은 무엇인가?

- 총동문회는 말 그대로 동문들의 모임이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현재 졸업생 중 지원자를 통해 이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나로 이뤄졌다. 현재 40여명의 이사가 있다. 이들은 일정의 이사회비를 내고 수행한다. 현재 총동문회는 우리 대학의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총동문회비는 15,000원이다. 납입하면 자동 가입된다. 사실 매년 졸업생을 천명이라고 잡아도 약 3천만 원이 들어와야 하지만 7,000,000원 겨우 납입된다. 안타깝다. 학생들의 반환율이 높은 편이다. 이 7백만 원 중 약 5,000,000원을 재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적은 돈으로 내 후배들에게, 동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감에도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최근 총동문회비 반환 비율을 줄이고자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총동문회 신문도 발행하려고 한다. 문제는 주소가 변경된 사항이 많아 배송문제가 클 것 같다는 것이다. 학보사와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간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행사(축구, 피구 등)가 많았다. 체육대회 분야 행사를 개최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 체육행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다는 강점이 크다. 그리고 몸을 사용하다보니 학과 간의 단합이나 사람들과의 유대와 연대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총동문회를 모르는 학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체육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대학의 경우 동문회가 학과별로 많이 분리되어있다. 각 학과마다 따로 행사 주최를 많이 한다. 그러다보니 전체 행사가 부족했다. 체육행사를 우선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각 학과에서 매년 실시하는 체육행사를 취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총동문회가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고자했다.

앞으로는 체육행사 뿐 아니라 재학생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고자 한다.

학과와 졸업년도는 언제인가,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는가?

- 사실 학교는 늦게 들어왔다. 2008년에 입학했다. 농담이지만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총동문회 회장이라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하하하하. 요즘 학교를 둘러보면 학생들이 많이 젊어졌다. 예전만해도 만학도들이 종종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요즘 학생들은 자기 일 외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 일과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자 변화라면 재학생들이 동문회 활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지역 내에 가지는 위상이 크다. 학생들까지 따지면 인원만으로도 엄청난 규모다. 그에 따라 많은 동문들이 있다. 여주시청만 해도 약 80여명이 우리 대학 출신이다. 여주에 지내면서 뭔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시청에 근무하는 선배들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런 문화가 없어졌다. 여주대학생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 대학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날개를 달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학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학의 비전 중 하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다. 총동문회가 이런 비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올해 이런 일환으로 일일 환경주무관 체험을 했다. 여주시 곳곳의 환경정화작업을 시행했다.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도 날라보았다. 앞서 언급한 체육행사와 더불어 3년 전부터 대학 사회봉사단과 연계해 활동을 하고 있다. 소외지역을 방문해 어르신 대상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에 하나뿐인 대학이기에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쌓아온 공로가 무너지기도 한다. 많은 대학들이 자치 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한다.

다시 한번 총동문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프린트 할 일, 공부할 장소가 없을 때 당당히 총동문회 사무실을 두들기길 바란다. 그 역할을 위해 우리가 도서관 2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부재중이면 포스트잇에 요청사항과 연락처를 남겨 달라. 바로바로 연락을 주겠다. 현재 우리 대학이 어렵다. 쓴 소리지만 일단 학생들이 바뀌어야 한다. 적극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수, 직원 그리고 나 같은 동문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모두가 변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우들과도 잘 지내고, 투표나 건의 등을 통해 학생으로의 권리도 찾아야 한다. 나도 동문으로 내 역할을 다시 각성하고 노력하겠다. 다들 한번 더 애써보자.

윤지호, 이소연 기자

제17회 문예대상 입상자 발표

지난해 학보가 재 창간된 이후 5년 만에 문예대상이 부활했다. 학생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시행에 앞서 우려도 컸다. 시각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가 다시금 '글'로 돌아간다는 것

이 쉽지 않아 보였다.

지난달 1일부터 20일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글이 공모됐다.

부활한 문예대상을 계기로 우리 대학에 학문에 대한 논의와 경험에 대한 끝없는 성찰이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 학보에 게재되지 않은 수상작 및 전문은 여암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 상 (수필)

집으로 가는 길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집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앓을 자리는커녕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지옥철. 목 끝까지 차오른 한숨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손잡이를 굳게 잡는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꾸벅꾸벅 조는 직장인. 책을 보며 공부하는 학생들. 울며 보채는 아이와 혼을 내는 엄마. 모두 저마다의 다른 하루를 보낸 사람들을 보고 지하철은 정처 없이 달린다. 다들 젊어지고 가는 그 피로의 무게가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걸까. 지친 하루의 끝자락에 서서 손잡이 하나에 내 몸을 맡기고 스르르 눈을 감는다.

눈을 뜨고.

다시 눈을 감는다.

눈꺼풀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졸음이 쏟아지지만 너무나 맑은 정신은 잠으로 빠지지도 못하게 한다. 하루 종일 동동 거리며 바보 같은 실수를 했던 그 시간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자꾸 머릿속에서 그 장면들만 마음대로 반복재생을 한다.

다시 눈을 뜬다.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바라본 창문. 창문에 비친 내 모습과 마주쳤다. 다시 눈을 감고만 싶어졌다. 질끈 묶었지만 형편없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곤으로 가득한 초췌한 얼굴. 축 처진 어깨와 겨우 손잡이에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몸.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있던 눈동자는 어디로 멀리 도망이라도 가버린 건가. 새어나오는 한숨을 차마 막지 못해 나지막이 토해낸다.

외면하듯 시선을 돌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 한 손에 쥐고 작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개를 파묻고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하릴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노래를 듣고, 게임도 하고, 다시 인터넷 서핑을 한다. 인터넷 기사를 가득 채운 글들은 모두 다 수능얘기, 취업얘기, 성적얘기 같은 것들이었다. 왜인지 마음이 더 무거워져 핸드폰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어느덧 밤이 되어버려 창밖은 어두컴컴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의 작은 불빛만 이 어두운 밤을 비추고 있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애써 모른척하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피곤하고 지친 마음은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것일까. 모든 것이 재미가 없고 도망치고 싶은 기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었고 지하철의 문이 다섯 번이나 여닫히고 여섯 번째 문이 다시 닫혀 질 때까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잠시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하다 지나치듯 보았던 글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지나갔다. 다시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그 글을 찾기 시작했다.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지금처럼 혼란스럽거나 불안하지 않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걸 모른 채 여기저기 헤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울면서 달렸고 어찌면 당

정하은 (간호학부)



신도 나처럼 울면서 달리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이 글은 이름 모를 책 속의 한 구절이었는데, 누군가가 개인 블로그에 그 책을 소개 하며 인상 깊은 구절이라고 올린 글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었을 때는 감흥도 없던 글이었는데 다시 읽었을 때 이 글은 정말 내 이야기구나 싶었다. 머릿속의 수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뭐가 이렇게 힘든지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22살의 어린이도 어른도 아닌 지금.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고 당연히 학교생활과 실습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한다. 학교생활과 시험만으로도 허덕거리는데 실습을 병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짧은 시간동안 헤어짐을 경험해야 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인 것만 같은 날들이 연속되었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하루가 끝나있어 아쉬울 틈조차 없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결국 또 내일을 바쁘게 살아가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혼자서 등을 떠밀리듯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짧은 사색으로 서러웠고 힘들었고 외로웠던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위로 받은 것도, 누군가에게 이해를 받은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했다. 자꾸 힘든 것을 들추고 지쳐버린 모습을 내 자신에게 보이면 더 약해질 거라고 지레 겁을 먹고 감추기만 했었다. 그동안 두려웠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외면하려고만 했었던 나의 깊은 모습을 드러내자 그 모습은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곤해 보이기만 하던 꾸벅꾸벅 졸던 직장인들의 모습이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보였고, 학업에 치여 힘들어 보이던 공부하는 학생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보였고, 시끄럽지만 했던 울며 보채는 아이와 혼을 내는 엄마의 모습은 행복해보였다.

지하철 문이 열렸다. 길고 긴 지하철 여행이 끝이 났다.

한 시간이 넘도록 몇 번인지도 모르게 열고 닫혔던 지하철 문은 바라보기만 했었는데 드디어 문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다.

어깨에는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있었지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저 가볍기만 했다.

덜컹.

현관문을 열자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의 얼굴이 보인다.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집안으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나를 향해 팔을 벌려 주고 활짝 웃어 보이며 서로 앞 다투어 말한다. 나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벗고 코트도 벗고, 얼굴에는 미소 한가득 안고 말한다.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간다.

우 수 (시)

아버지의 외투



박봉균 (실용음악과)

유난히 냉랭했던 가을의 끝자락이
먼지 쌓인 낡은 옷장을 열어
아버지의 외투 한 장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빈자리를 덮은 익숙함이
당신이 없는 오늘의 계절을
벌써 몇 바퀴를 돌아 온 건지
그 햇수조차 가물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에 얼어버린 집 앞 골목길이
행여나 넘어질까 두터운 장갑이 씌워진 내 손에
당신의 차가운 맨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옷장 안 외투를 꺼내어 품에 가만히 안아보니
아직도 질게 배어있는 얇은 외투 속 당신의 냄새가
오늘따라 당신을 더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장려 (비평)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를 읽고



송재경 (간호학부)

‘소설보다 흥미진진한 심리학 책’이라는 정재승 교수의 추천사가 잘 어울린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실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 책 속의 열 가지 심리 실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 가지의 경험을 하고, 열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충격에 휩싸였다가 이내 도덕성 문제를 고민하는가 하면, 갑자기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했던 열 번의 순간을 겪었다. (중략)

스키너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고 믿었다. 즉,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 변화는 자유의지가 아니며, 환경 혹은 강화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는 것이다.

뒤에 언급되는 9가지의 심리 실험을 주도한 학자들이 모두 스키너와 같은 생각과 펼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실험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쉽게 말해 환경의 변화나 강화 등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좌락좌락할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들이다. 결국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스키너 외 아홉 개의 심리 실험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중략)

스키너의 실험에서 실험대상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다. 때문에 그의 실험결과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나 역시도 인간과 동물의 행동을 온전히 동일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략)

오히려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키너의 실험에 이어 등장한 다른 심리 실험들이었다.

그 중 하나가 스탠리 밀그램이 시행한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다. 이 실험은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 ‘엑스페리먼트’를 떠올리게 했다.

‘엑스페리먼트’는 교도소 생활이 인간 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시행된 2주간의 실제 실험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과 ‘엑스페리먼트’속 실험은 유사점이 많다.

실험 속에서 ‘처벌’의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실험자의 ‘권위’를 통해 심적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 그러하다. 권력을 갖게 된 피실험자들은 처음엔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지만 점차 적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그것이

설령 상대방 피실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력과 권위의 힘을 등에 업고 자의로 처벌을 행하는 것이다. (중략)

내게 충격을 주었던 두 번째는 핼리 할로의 애착에 대한 심리 실험이었다. 우리는 대부분 유아기 때의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것이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삶까지 좌우하기 때문이다. 핼리 할로의 실험은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초기의 실험이라고 생각된다.

이 실험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두 가지다. 실험결과와 실험과정이 그것이다. 생식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동물’이 생식보다 스킨십을 더 우위로 여겼다는 점이나 유아기에 제대로 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장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점은 충격적인 실험결과였다. 내 생각 이상으로 유아기의 애착형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중략)

책을 읽던 중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경험도 있었다.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과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가짜 기억 이식 실험에 대해 읽었을 때였다. 나는 나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순수하게 자유의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다. 편편한 현실 속에서 부정응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잘 적응하고 있는 척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혹시 나는 아닐까. 뮤지컬 ‘루나틱’에서는 ‘현대인들은 이미치 세상에서 정상인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말에 힘을 실어주는 이론 같았다.

가짜 기억 이식 실험 역시 내가 믿고 살아가던 근간을 흔드는 느낌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에 백 퍼센트 확신을 하고 믿었던 내게, 가짜 기억 이식 실험의 결과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다. 나는 ‘합리화’를 위해 내 기억을 ‘조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의심을 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중략)

이 책을 읽다 보면 고민의 시간 끝에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여도, 인간의 심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심사평

심사결과

대상 |

- 수필 ‘집으로 가는 길’ - 정하은(간호학부)

우수 |

- 시 ‘아버지의 외투’ - 박봉균(실용음악과)
- 수필 ‘마음’ - 이진영(보육과)

장려 |

- 비평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 송재경(간호학부)
- 수필 ‘나무’ - 김태영(간호학부)
- 시 ‘감기’ - 이혜리(광고홍보과)

17회를 맞이하는 문예대상 공모전이다. 우리 대학 문예대상은 웬만한 유명 공모전 못지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는 17개 학과에서 4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전체 응모자의 40%가 넘는 19명이 특정 학과에서 응모하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미리 배부된 응모 작품들을 읽고 만나 부문별로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1편씩 그리고 전체 대상 1편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 때문에, 대학 때는 취업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소중한 것들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현실이 늘 아쉬웠다.

그러나 글쓰기를 좋아해서 글을 쓰고 세상에 내놓는 용기를 가진 여주대학교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고, 또 글 솜씨 또한 만만치 않은 작품들이 많아 한번 더 놀랐다.

시 부문에는 25명의 학생들이 55편의 작품으로 가장 많이 응모하였다. 전문가 못지않은 기량을 뽐내는 작품도 몇몇 보였으나, 심사위원들은 학생들의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삼았다. 장려상에 광고홍보과 이혜리의 〈감기〉, 우수상에 실용음악과 박봉균의 〈아버지의 외투〉를 선정하였다.

〈감기〉는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짧은 글로 시의 특성을 잘 살렸고, 〈아버지의 외투〉는 사물과 교감을 통해 아버지를 그리며 서정성과 시적 기교가 뛰어난 시라고 의견을 모았다.

비평 부문에는 6명의 학생이 6편을 응

모하였다. 비평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글을 쓴 작품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수상에 해당하는 작품은 고르지 않고, 간호학부 송재경의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를 장려상으로 선정하였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들과 자신의 보고 읽었던 영화와 책을 연결하여 자신의 주장을 나름대로 이끌어간 저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수필 부문은 15명이 15편의 작품을 응모하였다. 장려상에 간호학부 김태영의 〈나무〉, 우수상에 보육과 이진영의 〈마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전체 대상으로 간호학부 정하은의 〈집으로 가는 길〉로 정하였다. 수필을 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지난 시절, 대학 생활 전반을 회고하는 형식의 글을 썼다. 〈나무〉는 나무와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정리한 글이고, 〈마음〉과 〈집으로 가는 길〉은 버스와 지하철이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통해 삶에 대한 단상을 기록한 글이다.

특히 대상인 〈집으로 가는 길〉은 힘든 생활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자신에 대한 격려와 사랑이 글의 틀 안에서 살아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글쓰기를 즐기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

심사위원 최종철, 이동선
신혜승, 류재용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말하다

최근 몇 달 간 신문지면과 방송 뉴스를 도배한 단어는 ‘국정화’다. 이미 확정고시가 나고 집필진이 구성되었다. 2017년 교과서가 나오면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화 교과서 논란은 갑자기 시작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국사 교과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를 둘러싼 이야기를 학보사 학생기자들이 나눠보았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사태

중고등학교 6년간 이름도 잊지 않는 출판사가 있다. ‘교학사’. 학창시절을 보낸 이 중 이 출판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13년 9월 중순 매스컴을 통해 연일 교학사 이야기가 나왔다. 교학사 국사 검정교과서에 친일 지향과 독재 정부 미화 내용이 실렸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구절은 논란에 기름을 퍼부었다.

현대사 뿐 아니라 이전 역사에서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훈민정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약 1,000자 가량 오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국의 약 800개 고등학교가 교학사 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국민 대다수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 서명을 벌였다.

현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주장하는바 중 하나는 이러한 검정교과서의 오류를 막고자 함이다.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에 대한 여론

기존 한국사 교과서는 대다수 검·인정 교과서이다. 검·인정 교과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의 검정심사에 통과하여 쓰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국정화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들의 어지러운 논점을 통일시켜 하나의 의견만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국정화 교과서 찬성론자들은 현재 검정교과서가 오류가 많아 학생들이 역사를 배움에 있어 혼란이 많다는 점을 든다. 특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사 교과서와 교사들이 좌편향 되어 있어 정부에 반하는 내용을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다. 반대의 의견으로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아닌 국민의 역할이며, 역사를 단

일화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우민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2017년 3월,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발행된다. 현재 OECD 국가 중 역사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터키, 아이슬란드, 그리스이다.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민간 교과서와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거세지자 한쪽에서는 ‘검정교과서도 사실은 문제다. 국가의 검정심사도 다양성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말한다.

확정고시 이후 몇몇 지자체 교육청과 역사학자 모임에서 대안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다. 하나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무섭고 어리석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획일, 단일에 대한 공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볼 줄 아는 시각을 길러줘야 한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시선을 외면하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관점과 흐름을 다 읽을 줄 아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혜빈, 안예지 기자

■ 너의 목소리가 들려 - 학생기자 대담

•학생기자 1 : 역사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 해방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시각이 답일까 매우 우려스럽다.

오히려 더 편향된 시각이 답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교과서의 경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용이 바뀔 우려가 크다.

•학생기자 2 : 국정화 교과서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생각한다. 현재 역사 교과서의 잘못된 표기를 명료하게 고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실 시험을 위함이다. 교과서마다 논조가 다르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을까.

학생기자 3 : 과격하게 말해서 국정화 교과서는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역사는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획일화된 역사 교육은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의식이 결여된 채 무조건적인 수용을 부를 수 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 것이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다. 오죽하면 역사학자들과 그것을 배우는 학생들이 반대 서명을 펼치겠나.

•학생기자 4 : 국정화 교과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논의가 왜 이번 정권의 입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현 대통령이 2005년 국회의원 시절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근데 10년 만에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입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정상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 사회는 다양해야지, 정상·비정상 이분법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구분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다양성을 위해 국정화는 문제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말을 바꾼 것에 어떤 의지나 논조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학생기자 5 : 사실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이 된 이후로 역사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어졌다. 국정화 교과서도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니 ‘아! 논란이 크구나’ 생각하지 ‘내가 그걸로 공부할 것이 아닌데’ 싶기도 하다. 뉴스를 보니 해당 중고등학교들도 본 인들은 ‘EBS로 공부하는데’, ‘월로 배우든 상관없다. 어차피 시험 때문에 공부한다’ 이런 의견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감흥이 없기도 하다. ‘이렇게 떠들다 말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다. ‘그저 정부가 문제가 많다’ 느낄 뿐이다. 말하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원가에 골몰하고 의지를 가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귀찮기도 하고.

■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해당 월에 맞춰 국내외 역사를 되돌아보는 코너입니다.

격동의 시대가 열린다

1945년. 우리에게는 해방의 시기였고,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이 마감된 시절이었다. 전쟁 이후 많은 문제 처리와 안정화를 위해 여러 회의들이 개최된다.

그중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27일 이른바 모스크바 협정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에 관한 협의

사항은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구성,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이 었다.

이 과정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고, 한반도 내에도 반탁과 친탁 세력의 대립으로 인해 혼란이 더해간다. 이후 조선의 완전한 독립은 희망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내 이념갈등과 이를 조장하는 세력에 따른 내부 혼란이 심화되고 한반도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모스크바 협정은 애매모호했던 한국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큰 의의를 가진다.

임다슬 기자

■ 학생회 칼럼

안녕하십니까. 사랑, 봉사, 실천으로 함께 하는 23대 총학생회장 김민우입니다.

1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다니. 새삼 시간의 흐름을 느낍니다. 우선 올 한해 저희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작년 이맘때 학생자치단체를 통해 학우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함께 웃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가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겪었던 불편함,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흥미로웠던 점 등 재학생이라서 느꼈던 점들을 통해 학우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알고 싶은 학생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을 고치고 싶었고, 전체 학과, 교수님 등 학교 구성원이 어우러지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하여 Y리그, 용마 축제, 명랑운동회 형식의 체육대

사람을 배우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 작은 이벤트 등을 준비했었습니다.

미숙한 부분도 많았고, 열의가 너무 앞서다보니 의견 조율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학생처, 대의원회 등과 늘 회의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불편

하거나 어려운 점을 들어왔습니다. 어리숙하기도 했지만 저희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학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환한 웃음을 보여줬을 때마다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안전시설 정비 등 공약을 이행하고, 선수법을 모토로 해왔지만 많은 의견을 100% 개선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죄송함도 많습니다.

1년 동안 지나가는 저희에게 웃으며 인사해주던 많은 학생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학생회장으로 지내면서 보여준 관심과 격려는 아마 제 인생에 굉장한 자부심과 고마움으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됩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무거움과 두려움도 많았지만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많은 경험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24대 총학생회가 내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학우 여러분을 배울 많은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 여주대 학우들이 각자의 시간에서 많은 공부와 성과를 이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대 총학생회장 김민우

칼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몇 년 전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혼자 놀기에 아주 적합한 미술관 찾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부쩍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게 되고, 장수 시대에 생애 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칠 수 있을까, 덜 지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히 발길을 돌리게 된 터다.

그런데 그림을 마주하다보니 이 또한 아무 지식 없이, 훈련과정 없이는 가슴 뛰게 하는 감동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은 최고의 스승인 책과 문화예술 채널에 의존하는 한편, 방학 동안 미술사 수업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있다. 나 역시 음악사를 가르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역사 인식과 미학적 연결고리가 생기는 기쁨과 함께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다르게 생각했던 수많은 미술가들과 조우하는 흥분을 맛보고 있으니 헛된 선택은 아니구나 싶다.

그중에서도 내가 각별히 좋아하는 화가가 생겼는데 그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Caspar David Friedrich, 1774~1840)라는 독일 낭만주의 화가이다.

그는 광활하면서도 쓸쓸한 바다나 앞이 제거된 나목, 밤의 적막한 풍경을 많이 그렸고 특히 먼 곳을 응시하는 사람이나 해맞이를 하는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것만으로도 동시대 화가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그린 화가였다. 가을과 겨울, 새벽, 안개, 달빛 등 그가 묘사한 풍경을 마주하다보면 울컥하는 감정이 생기며 경건해지기까지 한다.

내가 각별히 좋아하는 그림은, 유명한 ‘안개 낀 바다 위의 방랑자’ 나 ‘대양 앞에 선 수도승’ 보다 덜 알려진 ‘**교회가 있는 겨울 풍경**’이다.

넓은 설원에 멀리 성당의 형체가 보이고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 한 사람이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겨우 보일 정도로 바위 위에 몸을 기대 채 작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눈발에 나동그라진 목발이 있다. 그는 아마도 오체투지를 하는 심정으로 그



i 내셔널갤러리 홈페이지

교회를 향해 눈발을 겨우 걸어왔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걸을 힘도 남아있지 않다. 그는 바위 위에 지친 몸을 기대고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마지막으로 안식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넓고 고요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그림이 발표되던 당시 너무 이질적인(특히 대부분 사람의 뒷모습을 그렸다가거나, 거의 보일 듯 말 듯 사람을 작게 그린 것 등등) 독특한 화풍 때문에 한동안 잊힌 화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9세기 전반의 가장 뛰어난 화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나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의 그림 앞에서 눈물 흘리게 한다.

수많은 예술가들 중 대부분은 이렇듯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베토벤은 합창을 교향곡에 포함시켰으며 급격한 악상 변화와 한 개의 주제를 전체 악장으로 확대시키는 등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시도를 함으로서 그 이후의 음악 역사를 바꾸었고 인상파 화가들은 빛의 순간을 포착함으로써 그림을 바라보는 화가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반영했으며 피카소는 그림을 평면이 아닌 입체로 바꾸면서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다.

다른 사람들이 황당해 할 때 또는 가우뚱 할 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예술가들 뿐이겠는가. 남과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 덕에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나 그리운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남이 공들여 연구한 결과물들을 무료로 감상하고 공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적대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좌파와 우파의 정의가 모호한데도 여전히 좌우 타령이며 인터넷에는 서로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증오가 난무하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나라를 떠나라고 욕박지르기 일쑤다.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일까? 자신의 경제력과는 무관하게 똑같은 명품 백 구매에 열을 올리고 똑같은 얼굴을 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으며 TV 프로그램은 온통 먹방 일색이다.

다른 것을 존중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서로 다른 생각이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균형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너그럽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있고 싶다.

i 신혜승

실용음악과 교수

사설

제24대 총학생회에 바란다

제24대 총학생회가 구성됨을 축하한다.

지난 11월 11일 2개 진영의 후보들이 출마하여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토대로 새롭게 회장과 부회장에 당선된 박재남, 최백서 두 사람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아울러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서는 졌지만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하며 선전을 한 윤연석, 정윤서 두 사람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

대학 총학생회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중심이 되는 기구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이끌고 지원하며 대변하는 역할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순수한 대학생의 입장에서 기성사회에 대한 소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부정적인 사건들이 돌출되면서 대학 총학생회를 바라보는 눈들이 곱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더불어 선거에 대한 팽배해진 무관심 때문에 대학 총학생회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한다. 금번 우리대학 총학생회장 선거도 전체 6,000여 학우들 중 800여명 미만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율이 15%에 머물렀다. 당선규정에 일정 수 이상의 투표에 대한 명시가 없어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수 학생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원인인야 어떻게 되었던 학생자치 대표기구로서의 위상이 약해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선출된 새로운 총학생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약해진 위상을 굳건하게 세우길 기대한다. 특히 2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온 전 총학생회의 전통들을 원만하게 계승하고 청년기 총학생회로서의 힘찬 도약을 당부한다.

교육부 평가로 대학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이 약해진 즈음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기를 살려주는 총학생회가 되어야 한다. 축제나 웅마체전 같은 대학차원의 행사들을 잘 치루고 대학 구성원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에 적극 참여하여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동안의 총학생회가 주로 담당했던 역할들이 그런 것들이다.

제24대 총학생회에 새롭게 바라는 것은 조금 더 학생들과 가까운 대표기구로서의 활동에 대한 것이다. 대학이 사회로 진출하는 전단계로서의 매너를 갖추고 전공지식을 갖추는 곳이라면 학생들의 교내생활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질타할 수도 있어야 한다. 휴먼문화의 정착, 교내 학습 분위기의 정착 등을 위해 총학생회주도의 계도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총학생회에서 권장도서를 설정하여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항상 거론되는 통학버스와 식당 문제 같은 경우는 관련부서와의 적절한 공조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위 학과의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체 동아리나 전공동아리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총학생회에서 지원해야 할 일이다. 축제도 유명가수를 부르고 주점위주의 행사로 진행되는 방안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건전한 활동들이 발표되고 서로의 가치가 발휘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만하다.

총학생회비가 등록금과 분리되어 수납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타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학생들과 더 가까워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학우들과 더 가깝게 그들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대변하며, 학우들이 대학의 비전인 자유시민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자수첩

내 속엔 스마트가 너무나 많아서...

외계인이 지구인의 공통점을 하나로 정한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스마트하다는 그 기기는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자리하고 있다. 길을 걸을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심지어 생리현상을 해결할 때도 함께한다. 나 또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이것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생활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스마트폰의 일상화는 이제 상투적인 문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렇다보니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 증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만연하다. 한국은 이제 게임 중독과 더불어 스마트폰 중독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 또

한 볼 꺼진 방안에서 한 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잠이 든다. 인터넷 게시판에 밤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얼굴로 떨어져 아팠다는 이야기는 상당하다. 과유불급. 스마트폰은 현 시대에 이 사자성어를 다시금 이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전문가들은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현실에는 무감각해지는 일명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블루라이트에 따른 숙면 방해, 각막 손상, 거북목 현상 등도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위험성에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늘게 되면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길을 가며 게임이나 영상을 보다가 신호등도 살피지 않고 길을 건너게 되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크게 위험한 요소가 가득한 스마트폰과 잠시나마 안녕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에는 이런 논의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 만남 자체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스마트폰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도 등장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중간 중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 무엇이든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디지털 과잉에 따른 인간성을 되찾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인간성을 찾아보자.

i 임다슬 기자

어디까지 가봤니?

고요함을 넘어선 경건함, 목아박물관



목아박물관 홈페이지

어느 박물관이나 대부분 학술적이고 고요하다. 허나 목아박물관은 고요함을 넘어서 경건함마저 느껴진다.

강천면에 위치한 목아박물관은 중요무형문화재 박찬수 관장이 불교와 전통문화 조각상을 모아놓은 곳이다. 박 관장의 50여년 세월을 보여주는 작품들과 보물 3점(보물 1144호 예념미타도량창법, 1145호 묘법연화경, 1146호 대방광불화경) 등 다양한 시

대의 불교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불상의 종류와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세계의 불상과 우리나라 불상을 구별해 전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찰 및 스님들이 실제 사용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다.

목아박물관은 1989년 우리나라 전통 목조각 및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졌으며, 1992년 문화관광부 제

28호로 등록된 전문사립박물관이다.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시가 수시로 열리고 있으며, 박물관 문화학교, 청소년박물관 학교, 목아전통예술학교, 전국 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입장료는 5,000원이지만 돈이 아깝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다.

이호정 기자

문화산책

비극을 웃음으로! 연극 <웃음의 대학>

'웃음의 대학'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힘든 시대에 극을 통해 웃음을 주고자하는 극단 웃음의 대학 작가와 희극은 시대의 사치라 생각하는 검열관의 대립을 코미디로 구성한 연극이다.

극단 웃음의 대학의 연극을 검열하여 웃음이 있는 장면을 삭제할수록 대본이 점점 재미있어지는 아이러니를 통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 최고로 불리는 코미디 극작가 미타니 코키의 작품으로, 1996년 일본 초연 이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에는 2008년 처음 소개되어 2013년까지 총 33만명이 관람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굴만 보면 '야' 하는



인터파크티켓

탄성이 나오는 남성진, 서현철(검열관 역), 박성훈, 이시훈(작가 역)이 출연한다.

다음달 24일까지 대학로 예술마당 1관에서 공연된다.

패러디와 풍자가 사라져가는 현 시기에 아주 적합한 블랙코미디이다.

윤지호 기자

책을 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유명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이다. 옹의자 X의 현신, 백야행, 방황하는 칼날 등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기존의 어둡고 사회 비판적인 성격과 다르게 훈훈한 감동을 준다.

소설은 경찰을 피해 잡화점에 숨어든 도둑들이 그곳에 있는 의문의 편지들에 답장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편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30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고민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살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던 도둑들은 조금씩 성장해간다.

편지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가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일으켜가는 도둑들을 보면 뭉클함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또한 추리 소설가답게 책 전반에 상담편지를 보낸 주인공들을 유추해가는 재미도 일깨워준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내일은 보다 멋진 날이 되리라" 어느 자기계발서에서



현대문학

봐왔던 식상한 문구가 소설의 재미와 시대와 구조 속의 개인을 잘 다루는 작가의 필력으로 새롭게 되살아난다.

김정은 기자

■ 감사합니다!!!

- 홍성례 교수님, 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박담비
- 창의관 청소해주시는 여사님들 고맙습니다. 늘 깨끗해서 기분좋아요. - 이병현
- 항상 잘 챙겨주는 내 사랑 이쁜이들(?) 고마워!! 고마워!!

이제 자주 못 봐서 슬퍼 - 백원희

- 치위생과 김주은, 넌 나의 엔돌핀! 정말 웃겨^^ - 김효진
- 호텔관광과 효진아, 내 이야기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모습이 참 이쁘다.

- 김주은, 오서린

- 이슬기 언니 고마워요.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언니는 멋쟁이 - 전찬미
- 작업치료과 임원여러분, 1년 동안 많은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고생했어요.

- 백가현

- 학보사 학생기자 1,2학년들, 1년 동안 잔소리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 기대합니다. 졸업하는 학생기자들도 파이팅 - 강미정

대학 슬로건

공모전

여주대학교 이미지 강화를 위한 슬로건 공모전

대상 | 재학생 및 전체 교직원

기간 | 2015년 12월 1일(화) ~ 12월 7일(월)

방법 | 홈페이지 '슬로건 작성 양식' 다운 후 작성·제출

방문 접수 (소통본부 6층 기획처 홍보실)

이메일 접수(2008001@yit.ac.kr)

문의 | 기획처 홍보실 송봉근 담당(031-880-5498)

